소설「연금술사」를 통하여 본 인생행로의 지리적 의미

- 통합장이론의 적용 가능성 모색 -

Geographic Significance of the Course of Human Life in the Novel, TheAlchemist: Applying the Unified Field Theory

이은숙(상명대학교, eunsook@smu.ac.kr)
이민부(한국교원대학교, minblee@knue.ac.kr)

Salter와 Lloyd는 1977년 문화지리학의 일 분야로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 geography of literature)이라는 영역에 대해 처음으로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고찰하였다.[1] 물론 이전에도 문학지리학이 지리학 분야의 한 전문영역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지리학자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이었다. 이들은 문학지리학을 경관에 대한 해석이나 지리적 현상으로서의 문학작품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접근방식이나 연구방법론에 있어서의 확고한 지침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지리학적 증거 발견을 위한 문학작품의 탐구,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사실적 자료 수집 작업, 문학작품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밝히려는 연구, 공간에서의 인간적 체험의 다양성을 밝히는 연구, 지리교육 도구로서의 문학의 이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있었을 뿐이다. 최근에는 장소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문학의 역할, 문학작품과 장소성 변화의 순환적 관계, 장소마케팅의 콘텐츠로서 문학작품에 관한 연구 등이 관광산업이나 정보산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Salter와 Lloyd의 주장처럼 지리학자가 문학을 지리적 현상 그 자체로 간주하여 접근하려면 그 연구 대상 작품은 지리적 현상을 모티브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지리학적 현상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문학이 구체적 현실을 형상화하는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허구(fiction)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문학작품을 지리학에서 취급하려면 문학작품 그 자체를 지리학으로 간주하는 접근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문학작품은 특정시대와 특정지역의 사회현상을 허구로 형상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취급되어진 사회현상은 일반적 현상으로 작가가 이를 경험하고, 문학에 반영한 것이다.[2] 따라서 그 문학의 기저에는 실질적인 지리적 요소와 요인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것은 지리학적 현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학은 인간의 경험을 묘사한다. 경험은 우리의 감

1) Salter, C. L. & Lloyd, W. J., 1977, Landscape in Literature, *Resource Papers for College Geography*, No. 76-3,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2) Pocock, D., 1981, "Introduction: Imaginative Literature and the Geographer," in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Essays on the Experience of Place*, ed., Pocock, D., London: Croom Helm, p. 1.

각, 감정, 지각, 인지를 포함한다. 지각은 지식을 갖는 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술사」는 문학작품이자 지리적 현상으로 접근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87년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의 장편소설로서 포르투칼어로 출간되었으며 원제목은 Alchemist(연금술사)이다.[3]

이 소설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학작품 자체가 지리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공간적 이동과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주인공의 체험과 지각, 인지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이 작품은 이동 공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 소설은 삶의 과정은 지리적 이동과 궤를 같이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로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사고가 장소와 통합되는 과정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어 통합장이론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이 발표는 특히 위에서 넷째로 제시한 통합장이론의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작품이 그 자체로서 지리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부분적인 답을 제시하려 한다. 통합장이론은 성장하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지평을 넓혀 주는 교육적 기능과 접목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이 소설은 지리교육적 의의도 아주 크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나선 양치기 청년 산티아고이다. 그의 험난한 여정을 기술한 이 소설의 주제는 한 인간의 자아를 연금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인간은 각자의 참된 운명 즉 자아의 신화를 사는 것으로 위대한 업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작가의 철학을 제시하는 소설로 사람들에게 환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설은 통합장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통합장이론은 이론적 물리학에서 단지 이름만 따온 것으로 물리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다. 정치지리학에서 사용되는 통합장이론의 장(場, field)라는 개념의 지적 기반은 '생각(idea)은 지역(area)에 연계(chain)된다' 는 것이다.[4] 생각과 지역이 연계과정의 양끝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는 이동(movement)라고 부르는 일종의 순환적 관계(circulation)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계과정은 정치적 사고(political idea) – 결정(decision) – 이동(movement) – 장(field) – 정치지역(political area)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마지막 한 끝에 놓인 정치지역은 반드시 국가의 건설과 같은 정치지역으로 한정되는 의미가 아니다(Dikshit 1982, 142).

이동은 본질적으로 순환적 관계로서 결정 내용과 관련이 있다. 어떤 결정은 이동을 일으키고, 또 어떤 결정은 이동을 변화시키고, 어떤 결정은 이동을 막고, 어떤 결정은 이전의 이동 대신 다른 방식의 이동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장(field)이란 이동이 아니고 유효한 공간적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이동과 장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이론을 소설 연금술사의 전체적 줄거리에 적용한

3) 최정수(역), 2004, 연금술사, 문학동네(Paulo Coelho, Alchemist).

4) Dikshit, R. D., 1982, Political Geography:A Comtemporary Perspective, New Delhi, Tata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pp. 142-146.

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그 연계가 성립된다.

산티아고의 보물에 대한 생각(idea) – 정보수집(꿈, 예언자와의 만남)을 통한 결정(decision) – 아버지의 재정 지원 – 이동과정(다양한 지리적 체험과 공간지각) – 장(field : 고향으로부터 피라미드 도착,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오는 범위) – 지역(area)는 고향(무화과나무가 있는 낡은 교회에서 보물을 찾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곳으로 상징된 지역)

이와 같이 문학작품은 자연과 인문환경 등의 분석적 관계를 제시하기 보다는 삶에 대해 우리의 주위를 환기시키며, 동시에 삶과 지리와의 밀착된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학지리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지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구체적 틀을 확립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